

[P2-1]

고혈압이 있는 제 2형 당뇨병환자의 신체계측, 생화학적 수치와 식습관과의 관계

노희경, 정은, 유주영, 천인에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Relationship of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indices to dietary behavior in insulin independent diabetes with hypertension

Hee-Kyung Ro, Eun Jeong, Ju-Young Yu, In-Ae Chu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수준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당뇨병은 신장질환, 신경계질환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그 중 고혈압은 당뇨병관리를 소홀히 할 때 발생하기 쉽다. 이에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의 혈압을 측정된 후 정상군(69명:49.6%)과 고혈압군(70명:50.4%)(SBP \geq 140mmHg, DBP \geq 90 : 고혈압군)으로 분류하여 생화학적 수치, 신체계측치, 식습관과의 관계를 비교 조사하였다. 제 2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의 혈압 측정 결과 정상군의 수축기 혈압은 117.8 \pm 11.3mmHg, 고혈압군은 149.0 \pm 15.0mmHg였고, 이완기 혈압은 각각 74.5 \pm 8.2mmHg, 91.0 \pm 7.2mmHg였으며, 남성의 44.1%, 여성의 56.3%가 고혈압군으로 나타났다. BIA에 의한 체지방측정 결과 정상군은 24.0 \pm 8.0, 고혈압군은 27.3 \pm 10.7을, 견갑골 피부두겹두께는 정상군이 17.0 \pm 4.9mm, 고혈압군은 20.6 \pm 8.6mm로 두 지표에서 모두 고혈압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또한 정상군과 고혈압군의 WHR은 각각 0.95, 0.96으로 두 군 모두 복부비만을 보였고, BMI는 각각 23.2, 24.1로 고혈압군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BMI로 비만을 판정하였을 때 고혈압군의 40.0%, 정상군의 24.6%가 비만이었고, BIA에 의한 체지방판정은 고혈압군이 37.3%, 정상군은 23.2%가 비만이었다. 정상군의 혈당치는 178.4 \pm 79.8mg, 고혈압군은 209.4 \pm 90.7mg이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수치는 정상군과 고혈압군 각각 161.0 \pm 40.0mg, 187.4 \pm 48.2mg으로 고혈압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혈중 중성지방농도, 칼륨, 나트륨 농도, 당화혈색소도 역시 고혈압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정상군의 4.6%, 고혈압군의 14.8%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 < 0.05$), 고혈압군의 81.0%가 고혈당으로 혈압이 높을수록 혈당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정상군이 고혈압군 보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였고, 천천히 식사를 하였으며, 과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고혈압군일수록 육류섭취가 잦았고, 짜게 먹었으며, 식생활에 영양지식을 적게 적용하였고, 음주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이들의 식습관을 평가한 결과 고혈압군의 식습관 태도가 정상군보다 나쁜 경향을 보였다. 본 조사 결과 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 고혈압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의 비만도나 혈중콜레스테롤, 혈중중성지방농도, 혈당수치, 식습관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당뇨병 고혈압환자들의 관리에 올바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